

지자체 K-다문화전문가 특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부산지역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권영은
(동명대학교)

1. 서론
2.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실무 역량 구조화와 사회적 자본 분석
 - 2.1. 현행 이민정책의 한계와 K-다문화전문가의 개념
 - 2.2. K-다문화전문가 역량 도출을 위한 3대 프레임워크
 - 2.3. 지자체 연계형 다문화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의 선순환 모델
3. K-다문화전문가 역량 구조 모형 구축
 - 3.1. 연구 대상 및 패널 구성
 - 3.2. 연구 모형 및 프레임워크 설정 근거
4. 지역사회 상생과 K-다문화전문가 교육과정 방안
 - 4.1. 델파이 조사를 통한 K-다문화전문가 역량 체계
 - 4.2. K-다문화전문가 교육과정 및 현장 내러티브 분석
5. 결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7036853).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지역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를 기반으로 한 K-다문화전문가의 역량 체계와 교육과정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랜 거주 기간과 우수한 이중언어 역량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은 공식 학위 부재와 노동 시장 내 연령 차별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실용적, 학습·진로적, 국내·외적 접근의 3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수립하였다.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2차 델파이 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을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활용하여 내용타당도지수(CVR) 산출 및 질적 개방 코딩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3대 프레임워크는 자의적 틀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검증되고 수정되는 분석의 도구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비가시적 경험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문 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지역사회 사회 통합에 핵심적으로 기여함을 밝혔다. 나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이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주체적 이주민 에이전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으로 전환되는 토대를 제시한다.

[주제어] 지자체 K-다문화전문가, 특화 교육과정 설계, 부산지역,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

1. 서론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이민자 유입 초기 단계를 지나 정주화와 인구구조적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강민희 외 2023: 9-11). 학령기 다문화 학생과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교육부 2025; 법무부 2023). 법무부의 이민정책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민자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실천적 주체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법무부 2026).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체류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들이 정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현실과 달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여성가족부 2021). 최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 15년 이

상 거주하고 있는 장기 거주자는 전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가구의 52.6%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4). 이는 다문화사회가 장기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주민과의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 사회적 고립감이 가중되는 현상이 국내외 주요 도시 사례 및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Bailey et al 2022: 4-6; Zhang et al 2023: 5-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3).

배제와 갈등이 지속되는 근본적 원인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체계의 한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남기범 2021: 80-83; 조경훈 외 2018: 130-133). 기존 제도는 내국인 중심의 자격 요건이나 고학력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이중 언어 능력과 상호문화적 소통력을 갖춘 정주형 이민자의 진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오은주 외 2021: 2916). 소수자 여성이 겪는 구조적 소외를 단순한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실질적인 주체성 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Gilani et al 2023: 2924-2926). 오랜 기간 축적된 결혼이민자의 현장 실천 자산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다수가 단순 일용직이나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광역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 비율이 비교적 높은 부산은 지역 다문화 정주 인구의 안정화를 뒷받침할 맞춤형 전문가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2; 부산광역시 2026). 본 연구는 주류 사회의 학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고유한 경험 자산이 공적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부르디외(Bourdieu)의 문화자본론이 지닌 계급 재생산적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이주민의 비가시적 자산이 문화부합이론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Competency-Based Education, CBE) 체계를 거쳐 실무적 가치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Bourdieu 1986: 248-252). 이를 위해 현장의 직무 요구를 정밀하게 도출하는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분석 기법의 직무 분석 틀과 Borich 요구도 분석 모듈을 혼합한 다각적 요구분석 방법론을 핵심 분석 틀로 채택한다. 궁극적으로 제도적 제한에 매몰되지 않고 부산지역 내 15년 이

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K-다문화전문가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체계적인 역할을 정립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널이 참여하는 델파이 기법과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귀납적으로 수렴한다(이오복 2014: 198-2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3대 프레임워크는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예비적 분석 틀로, 실제 델파이 조사와 FGI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장의 실증적 요구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재구성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신국과 지역 자산을 연계하는 경제·실용적 접근, 고등교육 진학을 견인하는 학습·진로적 접근,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국내·외적 접근의 세 가지 특화 교육과정 구조화를 제시한다.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의 범주를 벗어나 결혼이민자를 지역 상생의 능동적 에이전트로 격상시키는 실천적 교육 모델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실무 역량 구조화와 사회적 자본 분석

2.1. 현행 이민정책의 한계와 K-다문화전문가의 개념

기존 다문화전문가 관련 양성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고학력 여부나 특정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에 의존하는 하향식(Top-down) 선발 구조에 편중된 경향을 띠고 있음이 관찰된다. 한국 사회에 오랜 기간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실질적인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중재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공식 학위 부재를 이유로 전문 인력 풀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국가적 인적 자원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오은주 외 2021: 2925; 이경희 외 2018: 6-7). 본 연구는 구조적 소외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잠재적 역량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현상으로 진단한다. 주류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혼이민자의 고유한 배경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고, 도리어 이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기제로 작동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이 지닌 계급 재생산적 속성은 본래 소수자의 문화적 소외를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나, 본 연구는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Tsounis & Xanthopoulou 2026: 3-6). 배제된 잠재력을 긍정적인 직무 역량으로 치환시키기 위해, 이주민의 생활 경험 자산이 문화부합이론(Cultural Correspondence Theory) 관점의 맥락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결합은 공적 장(Field)에서 통용 가능한 자본으로 승인되는 제도적 공인 과정과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 기반의 체계적 훈련이 필수적으로 매개된다(조민경 외 2022: 134-138). 거대 이론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실무 지표를 직접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전면에 제시한다. 결혼이민자가 새롭게 구축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실제 직무(Competency)로 구현하려면, 실질적 기회의 확장을 확대하는 권리 담론을 직업교육학적 틀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Tuominen et al 2023: 620-627).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경험 자산이 지자체 특화 교육을 거쳐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Competency)으로 구조화되는 일련의 메커니즘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직무 역량 구성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실증적 과정을 거쳐 K-다문화전문가는 공인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매개자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2. K-다문화전문가 역량 도출을 위한 3대 프레임워크

결혼이민자의 잠재적 자산을 실천적 직무 능력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 관점에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을 사전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장인실 외 2025: 189-191). 사전 검토 작업은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된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구분석을 통해 현장의 실증적 수요를 담아낼 예비적 범주로 적용한다. 직업교육학의 대표적 요구분석 모듈인 DACUM 직무분석 및 Borich 요구도 분석의 틀을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 개념 범주로도 적용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연구자가

사전에 결론을 확정해 둔 폐쇄적 틀이 아니라, 향후 델파이 및 FGI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검증되고 수정될 분석의 도구로 기능한다.

첫 번째 차원인 경제·실용적 접근은 결혼이민자가 국내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이후 재취업 전선에서 연령 제한과 보이지 않는 고용 차별을 겪고 있어 단순 노무를 탈피한 전문 직무 개발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오은주 외 2021: 2925). 거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한 이중 언어 역량과 상호문화적 소통 경험을 지자체의 산업적 수요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산적 참여를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Zhang et al 2023: 2-8). 결혼이민자의 배제되었던 경험 자산이 문화부합이론의 매개를 거쳐 실무 역량으로 정당화되는 핵심 경로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축을 형성하는 학습·진로적 접근은 결혼이민자 가구의 생애 주기별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다문화 배경 학령기 자녀의 학업 및 진로 지도를 밀착 지원하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조민정 외 2022: 134-138). 현장의 다문화배경 자녀의 부모들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자녀의 맞춤형 진학 상담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호소하는 가운데, 학교 교사에게 심리적 장벽을 느끼는 격차를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를 맞춤형 멘토로 양성할 경우, 선배 학부모로서 축적한 경험은 가장 실용적인 교육 정보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장의 멘토링 경험을 요구분석 모듈을 통해 체계화하면, 다문화 청소년을 향한 다각적 지지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이정옥 1998: 168).

세 번째는 국내·외적 접근으로 모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글로벌 에이전트를 육성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지식을 파편적으로 전달하는 보조자에 머물지 않고 출신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착심을 확보할 때, 학생들에게 건강한 다문화 감수성을 온전히 전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시이히로코 외

2015: 130; Urlaub & Dessein 2022: 321). 과거의 단편적이고 동화주의적인 교육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글로벌 무대를 주체적으로 연결하는 다문화 역량 기반의 안목 함양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Diaz, et al 2023: 3-4).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배경은 지자체의 국제교류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3. 지자체 연계형 다문화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의 선순환 모델

지방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의 도입은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로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과거 이민자 관련 정책이 시혜적 복지나 단기적 정착 유도에 치우쳐 있었던 한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 특화형 인재 양성은 결혼이민자의 비가시적 자원을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부산 지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획득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대학의 고등교육 체계 및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결합되어 공공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적 전문성으로 구체화된다. 대학이 거점 교육기관으로서 다문화 인력을 전문화하고 지자체가 이를 행정·산업적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모델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적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 된다.

K-다문화전문가의 직무 역할을 정립하고 역량 구조를 모델화하는 작업은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향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선주민 집단의 배타적 태도는 이주민을 동화의 대상이나 의존적 객체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기인한다. 결혼이민자가 체계화된 다문화 역량을 갖춘 능동적 주체로 활약할 때, 주류 사회의 경직된 아비투스(a)가 유연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Tuominen et al 2023: 620; Zhang et al 2023: 7). 결혼이민자가 지역 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하고 다문화 강사로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가는 실증적 과정은 이민자 구성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을 촉진한다. 소수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을 탈피하여 구조적 통합과 상호존중을 실현하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은 배제적 문화를 극복하는 실천적 프레임워크로 평가된다 (Topuz 2025: 18).

지자체 연계형 다문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역량 모델링에 입각하여 현장의 요구를 정밀하게 수집하는 실증적 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절차는 결혼 이민자 구성원으로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업 및 미취업 상태 그룹의 목소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다각적 요구분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델파이 조사와 FGI를 병행하는 혼합연구 설계는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커리큘럼 설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론적 디딤돌로 기능이 확인된다. 실증적 모델 탐색은 다문화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모형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3. K-다문화전문가 역량 구조 모형 구축

3.1. 연구 대상 및 패널 구성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비가시적 소통 역량을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현장과 지자체 거버넌스의 체계적 결합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조사를 수행한 35명의 패널은 다문화 교육 및 실무 영역에서 학계 전문성과 지자체 행정 경험, 현장 실무 역량을 겸비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로 구성하였다. 패널 표집은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채택하였다(Patton 2015: 568). 다학제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패널의 전문 배경을 학계, 지자체 사업 추진, 현장 실무, 상

담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이라는 5대 표적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미취업 상태인 결혼이민자도 15년 이상의 거주 경험과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패널로 선정하였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관련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와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접근은 내용 타당도를 극대화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이오복 2014: 200). 15년 이상 부산에 정착하여 생활해 온 결혼이민자의 경험과 현장 실무 경험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질적 분석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35명 연구 참여자의 적절한 접근 방법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지자체 연계형 다문화 인재 양성이란 본 연구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표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면접 참여자 35명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및 구성원별 분류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표 1> 표적집단면접(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그룹 분류

그룹 분류	패널 코드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전문성 배경	인원 (명)
그룹 A: 미취업 장기 거주 결혼 이민자	A-1~ A-7	- 부산지역 15년 이상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 출신국: 베트남(3), 중국(2), 필리핀(1), 캄보디아(1) - 연령대: 30대(2), 40대(3), 50대(2) / 최종학력: 고졸 이하 - 현황: 자녀 양육 완료 후 재취업 희망자 (연령 차별 경험자)	7
그룹 B: 기취업 장기 거주 학교, 가족 센터 등	B-1~ B-7	- 부산지역 15년 이상 거주 및 다문화 강사 활동가 - 출신국: 중국(3), 베트남(2), 일본(1), 몽골(1) - 연령대: 40대(4), 50대(3) / 최종학력: 전문 대졸 이하 - 현황: 프리랜서 강사 활동 중(고용 불안정 및 직무 고도화 요구자)	7
그룹 C: 가족센터 등 현장 실무자	C-1~ C-7	- 출신국: 중국(2), 베트남(2), 네팔(1), 몽골(1), 러시아(1) - 연령대: 40대(5), 50대(2) / 최종학력: 전문 대졸 이하 - 부산 관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 담당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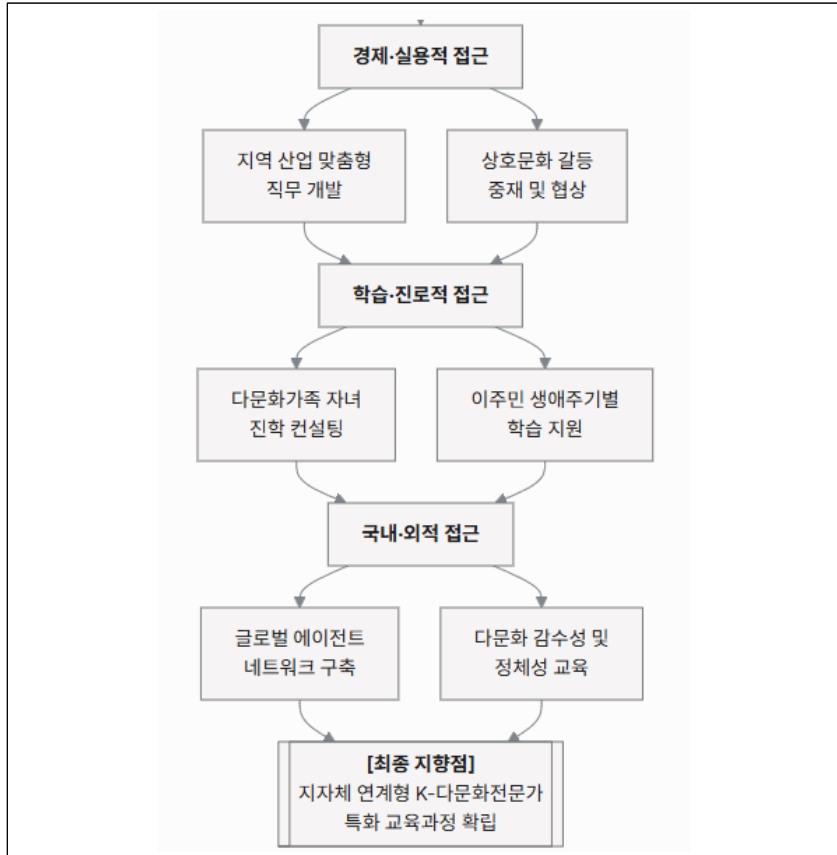
그룹 분류	패널 코드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전문성 배경	인원 (명)
		- 다문화 현장 행정 및 상담 경력 평균 8년 이상 - 현황: 이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룹 D: 지자체 및 공공기관 통번역	D-1~ D-7	- 출신국: 중국(2), 베트남(2), 네팔(1), 몽골(1), 러시아(1) - 연령대: 40대(5), 50대(2) / 최종학력: 4년제 대졸 이하 - 고용노동부, 출입국, 법원 등 통번역 담당 - 외국인력 유치 실무자 - 현황: 지자체 중심 상생 거버넌스 및 특화 일자리 연계 추진자	7
그룹 E: 학계 전문가	E-1~ E-7	- 출신국: 중국(2), 베트남(1), 필리핀(1), 인도네시아(2) - 연령대: 40대(5), 50대(2) / 최종학력: 대학원 이하 - 영어, 중국어,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 교수진 -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현황: 언어 교육과정 설계 등 자문 역할	7
합계	총 35명	델파이 조사 및 질적 FGI 교차 참여 패널 전체	35

3.2. 연구 모형 및 프레임워크 설정 근거

3.2.1.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정량적 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수정·보완(Modified and adopted)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3대 프레임워크는 사전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실증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예비적 개념 범주로 기능한다. K-다문화전문가의 상호문화이해 및 실무 역량 지표를 측정하고자 조경훈 외(2018: 138-140), 김태은(2023: 28), 남경진 외(2024: 23-27)의 선행 척도를 본 연구의 3대 프레임워크에 맞춰 재조정하는 적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5문항)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실무 현장 경험과 취업 애로사항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2차 조사 단계에서는 1차 개방형 응답을 정밀하게 유형화하여 구조화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오복(2014: 198-201)의 델파이 분석 모델의 패널 상호 간 의견 합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Lawshe(1975: 563-568)의 CVR를 산출하는 정량적 검증 단계를 거쳤으며, 내용 타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 예비 문항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림 1〉 K-다문화전문가 역량 구조 모델 탐색 연구 모형

제시된 〈그림 1〉 연구 모형은 K-다문화전문가 역량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프레임워크로, 델파이 및 FGI의 귀납적 요구분석 절차를 거쳐 최종 모델로 구체화된다.

3.2.2. 표적집단면접(FGI) 및 내용분석

양적 타당도 검증을 보완하고 현장의 맥락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텔파이 패널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병행 실시하였다. 면접 질문지는 참여자의 응답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Grand Tour Questions’를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발화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탐색적 꼬리 질문(Probing Questions)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접근을 채택하였다. 녹취된 전사 자료는 NVivo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Strauss와 Corbin(1998: 15-32)의 근거이론 기반 개방 코딩(Open Coding) 기법을 적용해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삼각측정법은 특정 집단에 치우친 해석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이론적 모델과 현장의 실증적 목소리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엄밀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 구축된 실천적 커리큘럼 설계 모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수렴된 다국어 기반의 내러티브와 FGI 녹취 전사 자료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적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25-40). 추출된 의미 단위(Meaning Units)들은 연구의 3대 프레임워크에 따라 체계화 하였다. 텔파이 합의도 도출을 위해 CVR을 산출하는 정량적 검증을 병행하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규정을 준수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자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고, 학술적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익명성 보장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 연구 윤리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

1)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데이터의 학술적 활용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별 면담 데이터는 FGI 전사본과 동일한 범주화 체계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질적 통합성을 확보하였다.

4. 지역사회 상생과 K-다문화전문가 교육과정 방안

4.1. 델파이 조사를 통한 K-다문화전문가 역량 체계

본 연구의 델파이 패널은 학계 전문가, 다문화 현장 실무자, 학계 및 현장 전문성을 겸비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 그룹을 3:4:3의 비율로 구성하여 이론적 엄밀함과 현장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CVR 산출 과정에서 통계적 임계치를 충족한 항목을 우선하고, FGI를 통해 도출된 당사자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정성적 보완 지표로 편제하여 연구의 귀납적 타당성을 귀납적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총 2차에 걸친 구조화된 폐쇄형 델파이 조사와 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FGI의 내용분석을 연계한 결과,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 기반의 K-다문화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군과 세부 지표를 추출하였다.

〈표 2〉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 기반 K-다문화전문가 역량 체계 구성 내용

3대 핵심 프레임워크	핵심 역량군	세부 직무 지표 및 가이드라인	CVR ²⁾
경제·실용적 접근	지역 산업 맞춤형 직무 개발	- 지자체(부산) 역사·문화 자산 연계 취업 모델 구축 및 안내 -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한 지역 내 비즈니스 통·번역 지원	.87
	상호문화 갈등 중재 및 협상	- 노동 시장 내 보이지 않는 고용 차별 및 연령 제한 극복 상담 - 선주민-이민자 간 직장 내 소통 단절 해소 및 갈등 관리	.89

2)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지수)은 Lawshe(1975)의 내용타당도 임계치 기준표에 의거하여 패널 수 35명 기준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치인 .3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역량 구조 모형에 최종 선정된 하위 지표의 CVR 값은 .87에서 .94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어 임계치를 크게 상회하므로, 전문가 패널 집단 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 합의와 현장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3대 핵심 프레임워크	핵심 역량군	세부 직무 지표 및 가이드라인	CVR ²⁾
학습·진로적 접근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 컨설팅	- 공교육 체계 내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 등 심층 정보 제공 - 다문화 학령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 설계 및 멘토링	.94
	이주민 생애 주기별 학습 지원	- 장기 거주자 대상 고등교육(검정고시, 대학) 진학 경로 설계 - 학부모로서의 경험 자산을 활용한 정서적 지지망 형성	.91
국내·외적 접근	글로벌 에이전트 네트워크 구축	- 출신국 문화 자본과 지역사회 외교 자산의 주체적 융합 - 부산지역 선진 정착 사례의 선순환적 전파 및 벤치마킹	.88
	다문화 감수성 및 정체성 교육	- 출신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협상 지원 - 선주민 대상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및 편견 해소 교육 실시	.90

Lawshe(1975: 563-568)의 공식에 의거하여 CVR의 최소 기준치를 충족한 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앞서 3장에서 예비적 개념 범주로 설정한 3대 핵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와 FGI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실증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체계화한 역량 모형은 견고한 학술적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육 체계가 간과했던 결혼이민자의 비가시적 소통 역량과 연령 차별 극복 의지를 구체적인 지표로 편제하여 결혼이민자를 단순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 전환하는 정책적 설계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도출된 하위 역량들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객관적인 학술 데이터로 변환해 낸 핵심 결과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과정 설계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FGI 방식을 채택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체계적인 단계별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패널 구성에서

도출된 원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 15-32)의 근거이론 기반 개방 코딩 기법을 준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통해 구성하였다. 첫째, 자료의 수집 및 전사 단계로 면담 과정에서 녹취된 35명 패널의 음성 자료를 문장 단위로 전사하고, 비언어적 표현이나 현장의 역동성이 포함된 맥락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여 자료의 맥락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둘째, 개방 코딩 및 주제 도출 단계로서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독해하고 연구의 핵심 주제인 K-다문화전문가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의미 있는 문장과 구절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셋째, 범주화 및 주제 재구성 단계로 도출된 하위 주제들을 상위 대주제로 통합하여 연구에서 설정한 3대 프레임워크에 따라 재범주화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특정 그룹의 의견이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었는지 상호 검증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텔파이 분석 결과는 다음의 4.2.에서 제시되는 심층 내러티브를 통해 그 맥락적 의미가 구체화되어 귀납적 모델 구축의 근거를 제공한다.

4.2. K-다문화전문가 교육과정 및 현장 내러티브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4.1절에서 도출된 텔파이 기반의 정량적 역량 매트릭스를 현장의 면담 내러티브와 교차 검증함으로써, K-다문화전문가의 핵심 역량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패널들이 단순한 조사 응답자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문가적 조언자로서 기여함을 의미한다.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공교육 체계 및 노동 시장에서 겪는 구조적 배제와 정서적 단절은 단순한 개인적 부적응이 아니라, 이들이 지닌 비가시적 자산이 공적 영역에서 승인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한다.

총 3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전사 자료(내러티브 데이터)를 비교 분석법으로 고찰한 결과, 연구 모형의 3대 접근법에 부합하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과 문화부합이론은 이주민의 체화된 경험 자산이 노동 시장 및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호 호혜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거시적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DACUM 직무분석 기법은 현장 실무가 지닌 실제 직무 과업(Task)과 미충족 교육 수요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Borich 요구도 분석 모듈은 현장의 절박한 교육 격차(Discrepancy) 중 어떤 요소를 교육과정 설계의 최우선 순위로 배치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통계적 검증 도구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이론과 방법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기존 다문화 지원 정책이 지닌 파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이주민 당사자를 주체적 에이전트로 세우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 3〉 표적집단면접(FGI) 내용 분석에 따른 핵심 주제 및 범주화 결과

핵심 프레임 워크 (대주제)	하위 역량군 (소주제)	주요 분석 내용
경제 · 실용적 접근	지역 산업 맞춤형 직무 개발	- 공식적 학위 부재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한 노동 시장 진입 장벽 존재 - 비가시적 이중언어 역량의 지역 비즈니스 실무 통 · 번역 전환 요구
	상호문화 갈등 중재 및 협상	- 외국인 노동자와 선주민 간의 직장 내 소통 단절 해소 필요성 대두 - 다문화 강사의 고용 불안정성 타개를 위한 공식 인증 제도 절실
학습 · 진로적 접근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 컨설팅	- 학령기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등 공교육 심층 정보 접근성 부족 - 선배 이민자 학부모의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및 정서적 지지 요구
	이주민 생애 주기별 학습 지원	-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 자신의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평생학습 갈증 - 학교 교사에게 털어놓기 힘든 다문화 가정만의 심리적 장벽 존재

핵심 프레임 워크 (대주제)	하위 역량군 (소주제)	주요 분석 내용
국내외적 사례 접근	글로벌 에이전트 네트워크 구축	- 선주민 중심의 일방향적 동화주의 교육 패러다임 탈피 요구 - 출신국 문화 자원을 지역사회 외교 자산으로 융합할 주체성 필요
	다문화 감수성 및 정체성 교육	- 편견 없는 상호문화 이해를 견인할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주도적 역할 - 지자체의 다문화 인구 정책을 시혜적 복지에서 상생으로 전환 모색

4.2.1. 경제 · 실용적 접근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공식 학위의 부재와 선주민 대비 과도하게 적용되는 연령 차별로 지목된다. 미취업 당사자와 기취업 실무 강사 그룹의 면담 내러티브를 교차 분석하면, 공급자 중심의 기존 다문화 일자리 제도가 지닌 구조적 맹점이 드러났다. 다수의 패널들은 학위 중심의 채용 관행으로 인한 진입 장벽을 토로하였다.

“15년 넘게 살면서 이중언어는 완벽한데, 한국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 서류조차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40대가 넘어가니 취업 시장에서 선주민보다 두 배는 더 밀려나는 기분을 지을 길이 없네요.”(그룹 A, 미취업 당사자 A-2)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졸업장이나 자격증과 같은 이런 서류 조건 때문에 주위 친구들도 역량이 많은데 좋은 데서 일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가 없어요. 좀 심각해요.”(그룹 A, 미취업 당사자 A-1)

참여자는 자신의 이중언어 역량이 충분함에도 한국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해 지원하고 싶은 곳에 서류조차 통과하기 어려웠다는 인터뷰는 부르디외가 지적인 문화자본의 제도화된 형태(Institutionalized Form) 부재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0대 이후 심화되는 고용 차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형식적 자격 요건 때문에 우수한 역

량을 보유하고도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개인이 실제로 체화한 이중언어 역량과 상호문화 소통 능력은 학위나 공식 자격증이라는 제도적 인증 장치로 전환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자체·대학 공동 인증 시스템이 곧 체화된 자원을 제도화된 자원으로 치환하는 핵심 장치임을 뒷받침한다.

다음의 면담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이 단순 통번역을 넘어선 전문 직무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말만 옮기는 통역사가 아닌, 문화적 어떤 내용까지 설명하는 요령과 깊이 있는 이해도가 통역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그룹 D, 공공기관 통번역 실무자 D-3)

“새로운 자격증을 만든다고 한다면요. 그냥 자격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나 부산시에서 취업 자리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통역이 생각보다 어려워요(휴하고 한숨 쉼).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전달해야 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통역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말만 통역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요령과 문화적 이해도가 좀 되어 있으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그룹 B, 기취업 다문화 강사 B-2)

“저는 현재 프리랜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고용 불안정이 너무 심각해요. 부산 지자체 기업들과 연계해서 현장 통번역이나 외국인 노동자 갈등 같은 거를 해결하는 거와 같은 어.... 전문 직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인정해주는 이런 게 너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그룹 B, 기취업 다문화 강사 B-3)

“그냥 보통 주는 자격증을 주는 거 말고, 부산시에서 직장 현장을 직접 연결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데에 좀 깨끗하고 이런 거 좀 시에서 해주면 너무 좋은 거 같아요”(그룹 B, 기취업 강사 B-2)

현장 실무자들의 내러티브는 단순 통번역을 넘어선 전문 직무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번역 실무자는 언어 전달을 넘어서는 문화적 맥락과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갖추는 것이 통역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취업 강사들 또한 자격증 부

여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현장과 연결해 주는 공적인 고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 직무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계 체계를 교육 과정 운영, 공적 자격 인증, 지자체·공공기관의 취업 연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고용 가교(Social Employment Bridge)’ 시스템으로 개념화하였다. 현장의 면담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비가시적 자산이 현장 실무로 안착하기 위해 직무 역량의 공식적 인정과 지자체 연계형 사회적 고용 가교(Social Employment Bridge)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4.2.2. 학습·진로적 접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지도와 교육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내러티브는 교육 현장의 정보 격차가 결혼이민자 가구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정서적 성장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그룹 A, 당사자 A-3)

“아이들이 대입 특별전형을 준비할 시기가 되면 어머니들의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해 좌절하는 사례를 매일 봅니다. 한국 교육을 먼저 겪어본 장기 거주 선배들이 멘토로 투입된다면 그 어떤 외부 전문가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그룹 C, 가족센터 실무 팀장 C-1)

“공교육 체계가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대학교 입학 안내나 특별전형 정보를 이주민 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상담이 절실합니다.”(그룹 C, 가족센터 실무자 C-2)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경험한 엄마들이 멘토로 나선다면,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그룹 B, 기취업 강사 B-4)

“이주민 스스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한국어 심화반을 넘어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경로가 필요합니

다.”(그룹 B, 기취업 강사 B-1)

“아이들이 자신의 다문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정서적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그룹 E, 학계 전문가 E-3)

“학교 선생님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다문화 아이들만의 상처가 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엄마들이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받는다면, 후배 엄마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진로를 짊어줄 수 있을 텐데... 애타는 기회가 부족해 진짜 아쉽습니다.”(그룹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당사자 A-4)

학습·진로적 접근에서 가족센터 실무진이 지적한 “아이들이 대입 특별전형을 준비할 시기가 되면 어머니들의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해 좌절하는 사례를 매일 봅니다”라는 요구는, DACUM 직무분석 기법을 통해 현장 실무가 지닌 실제 직무 과업과 미충족 교육 수요를 정밀하게 추출해야 하는 DACUM 직무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Borich 요구도 분석 모듈은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교육 격차 중 어떤 요소를 교육과정 설계의 최우선 순위로 배치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분석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패널들의 내러티브는 현장의 다문화 가정의 공교육 시스템 내 진학 정보와 정서적 지지 체계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패널들이 토로한 자녀 양육의 막막함과 교육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장기 거주 이주민의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한 당사자 기반 멘토링 모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가족센터 실무진은 “한국 교육을 먼저 겪어본 장기 거주 선배들이 멘토로 투입된다면 그 어떤 외부 전문가보다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 주도형 멘토링의 실효성을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경험 자본이 단순 육아를 넘어 공교육 보완재로서의 고등 교육 자본으로 치환될 때, 다문화 가정의 교육적 소외는 완화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Saadi et al 2023: 7). 이에 따라 특화 교육과정 내에 최신 대학 입학 전형 분석과 청소년 심리 상담 기법을 포함하여 이수자들이 진로 컨설팅으로 활약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세대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

4.2.3. 국내·외적 접근

세 번째 프레임워크인 국내·외적 접근은 결혼이민자를 단순 동화의 대상으로 삼던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글로벌 역량을 견인하는 주체적 에이전트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패널들의 내러티브는 상호문화 이해가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당사자의 문화 자본을 활용한 교류의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패널들은 K-다문화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상호문화적 중재자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패널들이 토로한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거부감은 결혼이민자의 문화 자본을 지역사회의 외교적 자산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Urlaub & Dessein 2022: 310-313). 이에 따른 지자체 관계자가 언급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다문화 인력 활용 방안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글로벌 에이전트 모델’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보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주민이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구조를 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랑? 뭐죠?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았튼 자기 나라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무기로 선주민의 편견을 깨는 말씀하신 글로벌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좀 할 때에 정말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그룹 E, 학계 전문가 E-2)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다문화 인구를 단순 복지 대상자가 아닌, 요즘 저출산 고령화에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또 국제 교류 같은 것을 좀 활성화할 이런 자율적이면서 외교적으로 보탬이 되는 우수한 인력 자산으로 바라보는 변화의 전환을 좀 추진하고 시도하는 중입니다.”(그룹 D, 지자체 사업 담당자 D-1)

“한국인들이 우리 고향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궁금해할 때 에 저는 진짜 소통이 된다고 알아요. 내 고향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도가 다문화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 자세예요.”(그룹 B, 기취업 강사 B-1)

“한국사람은 우리 외국인에 대해 그냥 이상하게 좀 쳐다보는 차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해야 해, 저거 해야해, 이런 한국 문화 교육보다는 저희 나라 문화를 같이 보

는 그런 이해가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그룹 A, 미취업 당사자 A-3)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과 출신국 양쪽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아이들에게도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그룹 D, 통번역사 D-2)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한국 문화 교육보다는 결혼이민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내러티브는 문화부합이론의 핵심 명제를 뒷받침한다. 이주민을 주류 사회의 관습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기존 방식은 문화적 마찰을 야기할 뿐이며, 주류 사회의 문화적 기대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자원이 상호 호혜적으로 부합할 때,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적 공존이 가능해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K-다문화전문가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은 다음의 3대 프레임워크로 귀결된다. 먼저 경제·실용적 접근은 이주민을 단순 복지 대상에서 지역 산업의 실무적 인재로 전환하고 공식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학습·진로적 접근은 공교육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선배 이주민의 교육 자원을 멘토링 모델로 정착시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대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적 접근은 다문화 인구를 주체적 글로벌 에이전트로 육성하고, 상호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들이 편견 없는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 지자체는 융합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적 에이전트 모델의 정립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 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극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역량 중심 요구분석과 3대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실용적 접근 차원에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가 직면한 공식 학위 부재와 연령 차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자체 RISE 사업과 연계된 공식 자격 인증 제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역량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학습·진로적 접근을 통해 공교육 체계 내 진학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선배 이주민의 교육 자원을 멘토링 모델로 정착시켜 세대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외적 접근 차원에서 일방향적 동화주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 주체적 글로벌 에이전트로 육성하고, 상호문화 감수성에 기반한 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경험 자산을 시혜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관점에서 구조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DACUM 기법과 Borich 요구도 분석, 델파이 조사, FGI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다문화 전문가 요구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적 절차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3대 프레임워크가 지자체 K-다문화전문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델파이 조사와 FGI를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앞서 3장에서 예비적 개념 범주로 설정한 3대 프레임워크가 자의적 틀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검증되고 수정되는 분석의 도구로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CVR 산출과 질적 코딩 분석을 거쳐 구성된 역량 체계는 향후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표준 커리큘럼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넘어 광역 지자체별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비교 연구와 후속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희·박희진·위고운·윤성찬·김민선(2023). 국내·외 다문화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상담·사회복지 분야의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4, 7-38쪽.
- 교육부(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김태은(2023).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직업적 특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탐구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이수 석사 과정생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5(11), 21-33쪽.
- 남경진·최명숙·이영래(2024). 중등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 진단도구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17(4), 21-45쪽.
- 남기범(2021). 다문화사회전문가정책의 문제정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5(3), 77-95쪽.
- 법무부(2023).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2023. 12.). 법무부.
- 법무부(2026).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법무부.
- 부산광역시(2026). 2026년도 복지시책안내. 부산광역시 복지행정 가이드라인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23).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4).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오은주·고진호(2021). 제주지역 중·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 취업의 한계와 개선 방안, <인문사회 21> 12(4), 2915-2930쪽.
- 이경희·강은희(201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언어능력 특성, <언어치료연구> 27(4), 1-8쪽.
- 이시이히로코·민기연·선곡유화·이영선(2015). 한·일 국제결혼한 장기거주 재한 일본여성의 문화정체성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8(2), 107-144쪽.
- 이오복(2014).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197-206쪽.
- 이정옥(1998). 유아 교사교육과 개념도의 활용, <교육연구> 6, 155-173쪽.
- 장인실·박선운(2025).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 기반한 학교 다문화교육과정 개발 모습에 대한 이해, <다문화교육연구> 18(1), 187-211쪽.
- 조경훈·김진명(2018).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역량요인 연구, <다문화와 평화> 12(2), 121-142쪽.
- 조민경·김선주(202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133-157쪽.

- 행정안전부(2022).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행정안전부.
- Bailey, M., Johnston, D. M., Koenen, M., Kuchler, T., Russel, D., & Stroebel, J.(2022). The social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Evidence from the networks of Syrians in Germany.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29925, pp.1-73.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pp.241-258.
- Diaz, J. M., Gusto, C., Jayaratne, K., Narine, L., Silvert, C., Suarez, C., & Wille, C.(2023). Intercultural competency development model for extension professionals: Expert consensus using the Delphi technique. *The Journal of Extension*, 61(3), Article 2, pp.1-10.
- Gilani, S. R. S., Al-Matrooshi, A. M., & Qureshi, A. N.(2023). Analyzing the limitations of agency and rights in migrant women's empowerment. *Pakist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3), pp.2924-2933.
- Glaser, B.G., & Strauss, A.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de Gruyter.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pp.563-575.
- Patton, M. Q.(2015). The sociological roots of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The American Sociologist*, 46(4), pp.457-462.
- Saadi, A., Morales, B., Chen, L., & Sudhinaraset, M.(2023).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among Mexican and Chinese immigrants in Southern California: A qualitative study. *SSM -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3, 100247, pp.1-9.
- Strauss, A.L., & Corbin, J.M.(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Topuz, S. K.(2025). Women's poverty in the context of the capability approach: a study on Turkish women living in Berlin. *Journal of Humanities and Applied Social Sciences*, 7(1), pp.1-22.
- Tsounis, A., & Xanthopoulou, D.(2026). Social Capital Theory: A review. In S. Papagiannidis(Ed.), TheoryHub Book(Available at open.ncl.ac.uk). ISBN: 9781739604400, pp.1-19.
- Tuominen, M., Kilpi-Jakonen, E., Velázquez, R. G., Castaneda, A., & Kuusio,

- H.(2023). Building social capital in a new home country. A closer look into the predictors of bonding and bridging relationships of migrant populations at different education levels. *Migration Studies*, 11(4), pp.598-630.
- Urlaub, P., & Dessein, E.(2022). Sense of place, imaginative mobility, and intercultural awareness through a map making project in a study abroad program.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35(1), pp.305-324.
- Zhang, Y., You, C., Pundir, P., & Meijering, L.(2023).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urban areas: A scoping review. *Cities*, 141, 104447, pp.1-10.

필자 소개

성 명 권영은

소 속 동명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전자우편 dkxpsp43@hanmail.net

I Abstract

Basic Research for Designing a Specialized Curriculum for K-Multicultural Expert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Long-term Stayi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Busan Area -

Kwon, Young-eun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petency structure and curriculum framework for K-multicultural specialists based on long-term resident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Busan region. Despite their extended residency and advanced bilingual proficiency, married immigrants frequently face structural barriers such as the lack of official academic degrees and age discrimination within the labor market.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establishes a systematic educational framework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dimensions: economic-practical, learning-career, and domestic-international approaches. Utilizing a mixed-methods design that combines a two-round Delphi survey(with 35 expert panels)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the study identified content validity ratios(CVR) and performed qualitative open coding. The 3-pillar framework operates not as a predetermined rigid structure, but as an exploratory conceptual category inductively verified and refined through field-based narratives. The findings reveal that transforming the invisible experiential assets of married immigrants into officially certified professional competencies is crucial for fostering regional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al governments through the RISE initiative serves as an essential

institutional catalyst. Ultimat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shifting multicultural policies from a paternalistic welfare approach toward sustainable community coexistence driven by empowered immigrant agents.

[Key words] K-Multicultural Expert Local Government, Designing a Specialized Curriculum, Busan Area, Long-term Staying Marriage Immigrant Women

투고일 2026. 06. 10 / 심사일 2026. 07. 19 / 게재확정일 2026. 07. 22
--